

추억의 '교가' AI 입고 '힙'해졌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재미있게 풀어낸 광주 봉선동가 '더불어' 뮤직비디오 한 장면.



곡성중 교가 편곡 중인 모달 김정은 대표. <모달 제공>

학창 시절 대부분 '교가'를 불러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역의 산, 강 등 명소를 가사에 투영한 노래들은 공동체 정신을 환기하고 지역애를 북돋웠다. 그러나 일부 교가의 천편일률적인 가사, 일제 잔재, 성차별적 내용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낡은 교가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곡성유치원, 옥곡초병설유치원을 비롯해 곡성중앙초, 석곡초, 오산초, 옥곡초, 곡성중, 석곡중 등 지역 10여개 학교 교가들이 '새 옷'을 입었다. 광주 미디어사 모달(대표 김정은)이 곡성교육지원청 제안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교가 편곡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

편곡이 완료된 총 10개의 교가들은 알앤비, 발라드, 뉴에이지 등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와 접목돼, 세련된 멜로디로 변모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교가는 코드와 멜로디 라인 등에서 현대화된 요소들이 돋보인다.

모달 김정은 대표는 "현세대의 아이들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음악적 감수성을 갖고 있다"며 "학교 의례행사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흥얼거릴 수 있는 교가를 만들고 싶었다"고 편곡 의도를 밝혔다.

곡성교육청 교가 편곡 프로젝트 광주 미디어사 모달 작업 참여 유치원·초등학교 등 10개 교가 알앤비 등 접목 세련된 멜로디 변신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편곡 작업에 김 대표가 자체 제작한 AI 음성 모델을 활용한 '회귀형 음성 변환'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회귀형 음성 변환 기술'을 활용해 남녀 성別に 대응하는 AI 음성 모델 'J5 Kid'와 'ZSA Kid'를 개발해 이번 편곡 작업을 진행한 것.

'회귀형 음성 변환 기술'은 녹음본 또는 음원에서 추출한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이 원하는 노래를 학습해 자동으로 편곡하는 시스템이다. 김 대표는 "인간으로 빗대자면 '모창'과 비슷한 기술이다"며 "이번에는 편곡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향후 AI를 활용해 가사 및 멜로디 창작까지 이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모달은 이번 교가편곡과 별개로 광주 지역별 특성을 뮤직비디오에 담은 '동가(洞歌) 창작 프로젝트'도 진행해 왔다. 광주 콘텐츠코리아랩·창업진흥원 지원을 통해 광주 임곡동, 송정동 등을 모티브로 18개 곡을 창작했다.

동가 노랫말에는 광주가 품고 있는 인적 자원, 지역 특성 등이 반영돼 있다. '임곡동'에는 "기대 승 선생의 월봉서원/민중항쟁 시대의 등불 운상원 열사 생각"과 같이 광주민중항쟁, 광주 서원과 관련된 가사가 담겨 있다.

이외에도 서구 발산마을 비문에 적혀 있는 글귀를 인용한 "저쪽 언덕을 볼 수 있을 만큼 어느새 크게 더 높이 자라 있겠조"('발산마을 동가' 중 예시), 운율감과 반복의 묘를 살린 "송정동 송정동 동동으로 가요(-)/KTX 송정역 앞까지 발이 멈추고"('송정동' 동가 중 예시) 등 노랫말들은 지역 로컬리티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광주 곳곳을 모티브로 동가를 창작하고, 지역과 협업해 교가 현대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싶다"며 "향후 AI 기술을 활용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웹연극 작업물도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싶다"고 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장애 넘은 선율... 화합을 연주하다

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 아트위켄 콘서트 24일 국립나주박물관



소프라노 전혜은 클래식 기타 이상현 플루트 최유진 클라리넷 김주현

발달장애연주자들이 꾸미는 감동의 스페셜 콘서트.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대표 왕소영, 아트위켄) 소속 발달장애연주자들이 스페셜콘서트를 연다. 오는 24일 오후 1시 국립나주박물관 중앙홀.

아트위켄은 음악을 연주하는 발달장애인 350여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운영 외에도 40여명 장애연주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탈리아 로마와 페사로부터 국제교류공연을 가진 바 있다.

나주박물관 초청 '아트위켄과 함께하는 Special Concert'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소프라노 전혜은을 비롯해 클래식기타 이상현, 플루트 최유진, 클라리넷 김주현, 피아노 임유진,

기타 우병욱, 하모니카 이인혁 등 5명으로 구성된 아트위켄 윈드앙상블이 감동의 음악을 선사한다. 이어 드럼 박호진, 키보드1 임유진, 키보드2 김세운, 일렉기타 우병욱, 베이스기타 김도원, 색소폰 이예슬, 보컬 임세훈, 보컬 김의진, 래퍼 이인혁 등으로 구성된 아트위켄 그랑그랑 팍팍밴드가 잔잔한 클래식음악을 들려준다. 귀에 익은 드라마 OST와 열정 넘치는 팝밴드 곡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연주회는 음악적 재능으로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연주자들이 함께 하게 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장애연주자와 관객들이 음악을 매개로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관람은 무료.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성해나 작가 '한국 문학의 미래' 1위

예스24 한달간 온라인 투표... 다음달 4일까지 축하 댓글 이벤트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에서 성해나(사진) 작가가 1위로 선정됐다.

예스24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첫 문학 작품을 출간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12명의 젊은 작가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38만 2714명의 독자들이 참여한 결과 성해나 작가가 5만9475표(10.8%)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1위에 오른 성해나 작가는 2022년 첫 소설집 '빛을 걸으면 빛', '두고 온 여름' 등을 통해 단정하고 진중한 언어로 타인을 향한 이해를 따스하게 그고 있다. 뒤이어 5만7466표(10.4%)를 받은 김화진 작가가 2위, 5만6707표(10.3%)를 얻은 조예은 작가가 3위를 기록했다.

성해나 작가는 투표 결과에 대해 "언어라는 뼈에 살을 입히는 게 작가의 몫이라면, 작품에 뜨거운 피가 돌도록 온기를 불어넣는 건 독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귀한 마음과 계속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독자분들께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했다. 예스24는 이번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 성료를 기념하며 오는 8월 4일까지 축하 댓글 이벤트를 실시한다. 성해나 작가의 1위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남긴 회원 중 300명을 추첨해 YES포인트 1000원을 증정한다. 더불어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 5위권에 오른 작가들의 도서 구매 시 풍성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벨류업' → '가치향상' 으로 바꿔 말해요

문체부·국립국어원, 외국 용어 23개 쉬운 우리말 발표

'벨류업'은 '가치향상', '온 디바이스 에이아이'는 '단말형 인공지능', '뷰티테크'는 '첨단 미용 기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2일 상반기 외국 용어 23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말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다듬은 말 가운데 가장 잘 바뀌었다고 선택한 말은 응답자 89%가 긍정적으로 답한 '가치 향상'이 뽑혔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15세 이상 남녀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수용도 조사에 나타났다.

'가치 향상'은 '기업이나 조직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며, '벨류업'을 쉽게 다듬은 말이다.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23개 말 가운데는 '가상 인간'도 포함돼 있다.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의 인간'을 의미하는 이 말은 '비추얼 휴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또한 줄어들다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 '슈링크플레이션'은 '양 줄임/용량 썬수'라는 쉬운 말

로 다듬었다. 이밖에 '퀵 커머스'는 '빠른 배달 거래', '마터 팩토리'는 '핵심 공장'으로 다듬었다.

한편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는 낯선 외국어가 '내용 파악에 방해가 된다'고 답했으며 55.4%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 각각 나타난 48%와 50.4%보다 높았다.

국립국어원은 "외국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다듬는 활동은 내용 파악을 쉽게 하고 언어 사용에 대한 불편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쉬운 우리말 사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 용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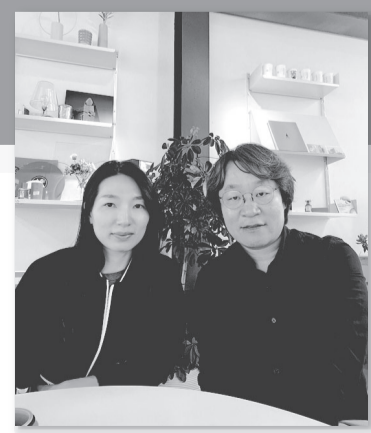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